중국판 밸류업 + 양회 = 여전히 유효한 대형주

✓ 글로벌 증시와 달리 나 홀로 약세가 계속됐던 중국 증시는
1)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
2)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국유기업의 KPI 항목에 시가총액 포함, 중국 국부펀드의 ETF 매입 규모 확대),
3) 역사적 저점에 가깝게 낮아진 밸류에이션 멀티플 등에 힘입어 소폭 반등 중

✓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정협+전인대)가 지난 4일 개막. 주요 경제 지표 목표치(경제성장률 5% 내외, 소비자물가 3% 내외, 재정적자 3% of GDP 등)는 예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기대한 '유의미한 경기 부양 정책(증안 기금 운영) 제시'는 없었음. 정부업무보고에서 AI 플러스 정책을 언급해 AI와 스마트 커넥티드카 활성화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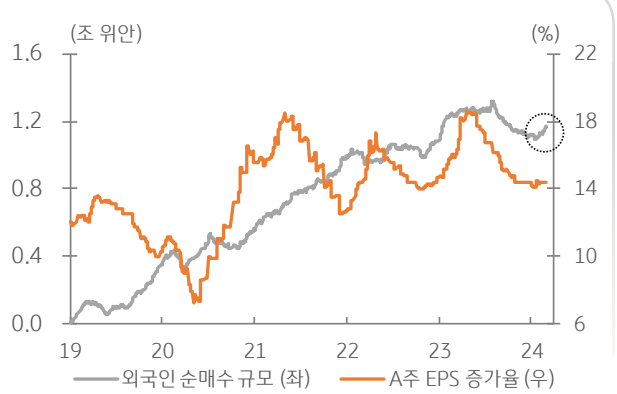
✓ 양회에 대한 실망감은 제한적이나,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며 높아진 미-중 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에 중국 증시의 반등 강도가 약화될 전망. 부동산 경기의 회복 전까지 소비주보다는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과 AI 등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테마가 결합되는 은행, 고배당 등 대형주 중심 투자 접근

중국 관련 KBSTAR ETF

상품명	총보수(연)	상위 5개 종목 및 비중	투자포인트
KBSTAR 중국본토CSI300	0.05%	Kweichow Moutai(5.79%) Ping An Insurance Group(2.50%)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2.37%) China Merchants Bank(2.12%) Midea Group(1.76%)	상해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주 중 업종 대표성, 시가총액, 유동성을 고려한 우량주 300종목에 투자
KBSTAR 중국본토대형주CSI100	0.65%	Kweichow Moutai(9.33%) Ping An Insurance Group(4.49%)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4.27%) China Merchants Bank(3.85%) Midea Group(3.13%)	상해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주 중 업종 대표성, 시가총액, 유동성을 고려한 우량주 100종목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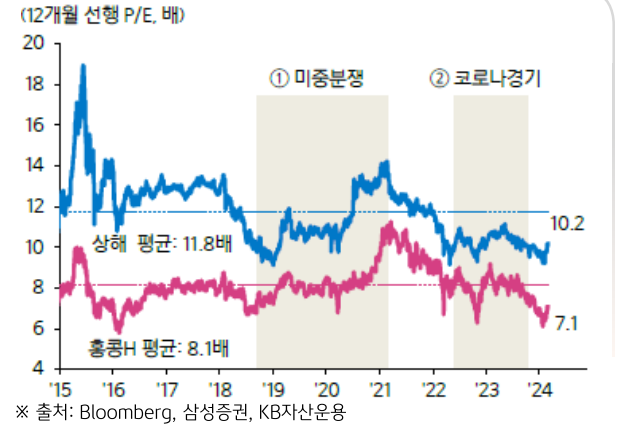
※ 출처: KB자산운용, 2024.3.6 기준

외국인 순매수 전환됐으나, 이익 개선은 더뎌



※ 출처: Wind, KB증권, KB자산운용

2015년 이후 평균 수준을 밑도는 밸류에이션



※ 출처: Bloomberg, 삼성증권, KB자산운용

※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광고 2024_256(다)'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KB자산운용